성형용 페놀수지시장 "위기"

수요정체 · 수입급증 · 원가상승 … 신수요 창출도 실패

국내 성형용 페놀수지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플래스틱성형용 페놀수지시장은 90년대 들어 수요정체와 함께 수입품의 급증, 소규모기업들의 참여로 인한 가격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성형용 페놀수지 생산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신규수요창출 실패와 최근 페놀 등 기초원료의 가격상승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플래스틱성형용 페놀수지 수요는 94년 연간 1만8000톤 규모로 92년 이후 5% 미만의 미미한 수요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은 내수가 5400여톤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 대만 · 일본 등의 수입품에 시장을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품은 가격은 물론 품질면에서도 수입품에 못미쳐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성형기업들의 수입품 선호와 맞물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플래스틱성형용 페놀수지 공급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4	구성비
생산	동아화학	2,500	11.1
	동광화학	2,000	8.8
	대종산업	2,000	8.8
	기 타	3,500	15.5
계		10,000	44.2
수 입		12,600	55.8
합 계		22,600	100.0

페놀수지는 주로 차단기 등 전기부품용으로 70%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주방용품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수요의 정체와 함께 대체 합성수지의 개발로 수요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출의 경우도 경쟁력이 취약해 동남아지역으로 연간 1000톤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원료수지 자체보다 대부분 가공제품형태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국내 페놀수지 선두기업인 동아화학 · 대종산업 · 동광화학 · 경동화학 · 유성화학 등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후발 영세기업 및 성형가공기업들의 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93년 Kg당 1000 1200원이던 것이 원료 및 생산원가 상승으로 95년2월 현재 20% 상승한 1200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93년초까지 수입품 가격이 20%정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후 기초원료가 상승과 운송비 부담의 가중으로 국산제품과 대등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성형용 페놀수지 생산기업들은 수요확대와 수입품 대체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와 생산설비의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작아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생산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내 플래스틱성형용 페놀수지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와 함께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4/3>